

- ◆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비동의강간죄, 오해와 진실 • 연결된 문제, 연결된 변화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의견서 • 삶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공간 만들기: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샵담소 후기 •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이 아직 없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 재생산되는 현실을 끝내자 • 시민 혈세 도둑으로 매도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보조금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
- ◆ 펀대상담소 ◆ 열림터 다이어리 • 망가지 것을 고치는 나의 방법 • 생존자의 목소리 • 한 때 중자기라고 생각했던 친구의 배신 • #Metoo, 나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 Dear. 나에게 ◆ 성문화읽기 • '벗방', '소라넷', 'N번방'을 관통하는 '욕망'
- ◆ 시골시골 상담소 • 재입사한 기분! 첫 로테이션 대상자들의 소회 • 동물사랑단 경진의 합정동 생태관찰기 ◆ 아낌없이 주는 나무 ◆ 훈훈한 기부





불안과 퇴행의 시대에도, 지치지 않고 함께 가요!

정부의 시계만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을 '반대' 한다고 공표하고,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시민단체를
'세금 도둑'으로 지칭하며 매도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활동에 호시절만 있었나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고립되지 않도록 뿌리를 잘 내리다 보면,
활동의 꽃을 피울 시기가 금세 찾아올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상담소의 곁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가요!

너부터

92

2023 상반기

퍼넌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퍼넌이 김혜정

퍼넌날 2023년 8월 11일

만든이 한소망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사무 전화 02-338-2890-1

상담 전화 02-338-5801

이메일 ksvrc@sisters.or.kr

홈페이지 <http://sisters.or.kr>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4	비동의강간죄, 오해와 진실
9	연결된 문제, 연결된 변화: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의견서
14	삶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공간 만들기: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살담소 후기
18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이 아직 없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 재생산되는 현실을 끝내자
23	시인 혈세 도둑으로 매도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보조금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
28	원대상담소
30	열림터 다이어리
30	망가진 것을 고치는 나의 방법
35	생존자의 목소리
35	한 때 종자기라고 생각했던 친구의 배신
40	#Metoo, 나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43	Dear, 나에게
46	성문화읽기
46	'벗방', '소라넷', 'N번방'을 관통하는 '욕망'
51	시골시골 상담소
51	재입사한 기분! 첫 로테이션 대상자들의 소회
57	동물사랑단 경진의 합정동 생태관찰기
60	아낌없이 주는 나무
64	훈훈한 기부

비동의강간죄, 오해와 진실

신아 |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강간 사건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뀐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법무부에서 말하는 대로 '억울한 피고인'이 많이 생길까요?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활동하는 신아가

의문에 답해보았습니다.

1. 동의를 어떻게 입증하나요?

동의 여부는 피해자 의사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합의한 성관계를 했어도 그 이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폭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성폭력 수사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성폭력이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건 경위, 피·가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와 그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성폭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주변인 진술 역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성인지감수성'은 물성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지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수사·재판에서 '동의'는 처음 시도되는 판단의 영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판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의를 반복할 자유”나 “예상하거나 동意的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음”과 같이 동의에 대한 판단지침이 될 만한 판례들이 이미 존재합니다.¹

그렇지만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수단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고 동의가 없었지만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거나, 폭행·협박이 사

1)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3341, 대법원 2022,8,19. 선고 2021도3451 참조

용되지 않으면 재판부에 따라서 성폭력으로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폭행·협박 구성요건이 동의 여부로 바뀐다고 하여서 ‘진술’에만 의존해 성폭력을 판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가해자가 처벌된다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말을 불신하는 사회적 통념에 근거한 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그럼 내가 겪은 건 성폭력이 아닌 건가요?

협소한 법 때문에, 수사재판부에서 성폭력 범죄가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경험한 일이 성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피해자들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루어진 성관계를 성폭력이라고 인식합니다. 2019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 사례 통계에 따르면 폭행 협박 없이 이루어진 강간 피해 상담은 71.4%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상담소가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6.7%가 동의 없이 이루어진 성관계는 성폭력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성폭력의 개념과 의미는 피해자들의 말하기를 통해 계속 변화해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이 일어난 조건과 맥락, 성폭력 피해 경험의 의미와 피해 이후의 회복을 이야기하며 법과 상식을 다시 써가고 있습니다.

3. 비동의강간죄 도입은 여성의 의사와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인가요?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에만 초점을 맞추는 시각에서는 사회 구조적 불평등에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과하곤 합니다. 여성에 대한 사

회경제적 차별, 여성이라는 이유로 마주하는 적대와 혐오, 상대방의 성적 욕망에 응해야 한다는 성적 시나리오 등은 성적 행위에서 여성의 의사가 무시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성폭력 가해자들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나, 아는 사이에서 신뢰나 호의 또는 기존에 형성되었던 통제적, 일방적 관계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 맥락, 관계를 무시하고 여성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은 성폭력과 성적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를 여성 개인의 능력으로 해결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가 다수의 성폭력이 일어나는 양상을 묵인, 방관하는 것이야말로 약자, 소수자의 의사와 성적자기 결정권이 계속해서 무시되도록 내버려 두는 셈입니다.

4. 비동의강간죄 개정,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21대 국회에는 3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² 그러나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논의된 이후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023-2027)에서 비동의강간죄 검토 계획이 철회되었고, 지난 6월 정부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여성에 대한 젠더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에 대한 무지를 전략적으로 택해왔고, 일부 남성 청년들의 무고 담론을 부추겨 왔습니다. 비동의강간죄는 현 정부의 백래시에 의해 막혀있는 상황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발의일 2020.06.08.) 의안번호 2100245, 정의당 류호정 의원안(발의일 2020.08.12.) 의안번호 2112596,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안(발의일 2021.09.15.) 의안번호 2112596



비동의강간죄 오해와 진실! 궁금증이 해소되었을까요?

더 궁금한 부분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강간죄개정연대 활동을 참고해 주세요.

더이상 피해자에게 얼마나 어떻게 저항했는지 묻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단체들, 피해생존자들, 시민들, 회원분들과 함께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보러가기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의견서

연결된 문제, 연결된 변화

오매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우리나라 성폭력 법은 매우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다.”

현장에서도 정말 그렇게 느끼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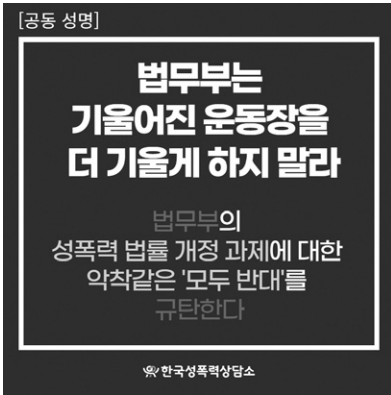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7개 단위의

릴레이 의견서를 소개합니다.

2023년 2월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계획 3차에 결정되었던 ‘형법상 강간죄 개정 검토’ 과제를 왜 반대하고 나섰냐는 국정질문에 대한 답 중 일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첫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규 자체가 꽤 촘촘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라든가 장애라든가 특별법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로 하는 범죄 죄명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150개입니다. 독일은 51개, 일본은 16개입니다. 특별법으로 상당부분 비동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의 법이 성폭력 문제를 ‘촘촘히’ 대응하고 있고, 폭행 협박을 좁게 보지 않도록 바뀐 판례변화가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성폭력의 보호법익은 성적자기결정권이며, ‘동의 여부’로 성폭력 판단기준이 바뀌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내심으로 주장



법무부가 양성평등기본계획 3차에 포함된 '형법 상 강간죄 개정 검토'와 관련된 모든 내용에 반대하는 사를 표해 이에 항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하면 신고, 고소된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강력한 벽을 세운다. 그리고 그것이 형사사법 절차상 '원칙'이라고 강조한다. 강간죄 판단을 '동의 여부'로 변경한 나라들은 형사사법 절차상의 기준과 절차를 재정립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법무부 장관은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박는다. 장관이 말하는 '피해자 내심'은 피해자 의심, '억울한 피고인'은 가해자 두둔의 다른 표현 아닌가?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춤춤'하다고 말해지는 한국의 성폭력 관련 법이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어떤 현실을 생성하는지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7개 단체가 릴레이 의견서를 매주 발행했다. 폭행·협박이 없이 발생하는 술과 약물, 업무상 위력, 성매매/성착취/성산업, 청소년, 장애여성, 결혼/친밀한 관계, 이주여성 주제를 꼽았다. 매주 목요일 SNS,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뉴스와 글을 배부했다. 릴레이 의견서에 이어 성폭력 피해생존자도 글을 발표했다. 국민참여설문조사 '원치 않는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됐다. 바야흐로 법 틈에 존재하는 여성폭력 현실을 '연결된 문제'로서 말하는 것이다. '연결된 문제'들이 '연결된 변화'를 일구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나씩 짚게 내용을 살펴보자.

①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증명하라고?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 따르면 피해자가 잠이 들었거나 술 또

는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준강간 사건의 경우 유죄 선고는 14%에 불과했다. 가해자들은 '만취 이전에 동의받았다', '(만취한줄) 몰랐다', '이미 스킨십이 있었다.'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수사 사법기관 역시 가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한다. 강간을 '동의 여부'로 판단한다면 동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 상태, 즉 잠이 들었거나 술 또는 약물에 취한 것이 범죄요건이 된다. _ 천주교성폭력상담소

② 업무상 위력 조항이 있으니 개정은 필요 없다?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운 위력성폭력

일부는 업무상 위력 간음, 추행 조항이 있기 때문에 비동의강간죄는 필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 고소·고발 사건은 강간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0.45%에 불과하다. 또한 2018년 안희정 성폭력 사건의 1심 판결처럼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어야 강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유형력' '저항' 관점이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도 적용되고 있기도 하다. _ 한국성폭력상담소

③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성매매 여성들이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은 1) 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행위, 2)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3) 약속된 '돈'을 지불받지 못한 성행위 등이다. 하지만 수사기관 포함 우리 사회는 이를 '성매매'로만 이해한다. 설령 신고하더라도 피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기도 한다. 성매매 여성에게 '동의'란 무엇이고, 강간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에 동의하지 않았나? 나아가 성매매 구조에서 무엇에 동의 '할' 수 있고, 무엇에 동의 '할' 수 없는가? 분명한 것은 성매매 여성은 '동의'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_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④ '동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생각',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청소년은 도움을 요청했는데 돌아온 것은 황당한 질문들이었다. '그런 행동이 싫은데 왜 계속 사귀었니?', '그런 애를 왜 만났니?',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었니?' 피해자는 주변 어른들과 수사기관에 피해를 설명, 설득하는데 지쳤다.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살 수밖에 없다. 성별, 연령대 등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의가 가능했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_ 탁틴내일

⑤ 왜 '장애'가 유무죄 판단 근거가 되는가?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해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입증되어야 피해자 '자격'을 부여받는다. 대부분 가해자는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한다. 수사 사법기관도 장애여성의 일상생활 능력을 근거로 가해자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또 가해자가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행위를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킨 '위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 부동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존재들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호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_ 장애여성공감

⑥ 누가 이들을 '취약'하게 하는가? 이주여성 대상 성폭력, 그 수단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이주여성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은 폭행·협박이 아니다. 제한된 취업, 혼인·출산·육아 등 성역할을 수행할 때 부여되는 불안정한 체류자격 제도로 인해 언제든지 '미등록'이라는 불법적 지위로 몰릴 수 있는 현실이다. 노동현장에서의 가해자는 주로 사업주이다. 그로 인해 가해자는 피

해자의 언어능력, 노동조건과 체류자격, 경제 상황,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이주여성 피해자는 ‘재입국특례제도’를 통한 재취업 기회를 약속한 가해자(사업주)를 신고하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한이 막강한 상황에서 폭행협박 업무상 위력 등 엄격한 인정은 불필요한 처사이다. 선주민 피해자만큼 상세한 진술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유불리한 진술의 구별 없이 조서가 작성되기도 하고,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모순된다는 이유에서 무고죄나 명예훼손죄의 혐의를 의심받는 위협에 처한다.

_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백소윤

⑦ 부부간 성관계는 언제든 동의된 것이다? 숨겨진 범죄, 아내 강간

1970년, 대법원은 남편이 강제로 아내를 강간했다라도 ‘실질적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시간이 흘러 1995년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2012년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 드디어 2013년 아내강간이 대법원에서 최초로 인정되었다. 현실은 어떤가?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경험한 피해의 13.5%는 배우자이다.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 중 ‘성학대’를 경험한 비율이 70.4%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비롯하여 국가에서 발표하는 범죄 통계에서 남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은 없어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어렵게 남편을 고소한 경우에도 ‘이혼할 때 유리하게 적용되려고 신고한 거 아니냐?’ ‘가족인데 신고하냐?’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한다. 언제나 ‘동의’상태에 있다고 여겨지는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이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 _ 한국여

성의전화 



전체 내용이 궁금하다면?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삶담소> 후기

삶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는 공간 만들기

산 | 회원홍보팀 활동가



*‘페미니스트로서 살아간다’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살마리를 잡기 위해 두 차례의 북토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삶을 고민하고 나누는 자리의 기록,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북토크의 기획을 두고 자원활동가 은화 님과 첫 회의를 했을 때, 사실 논의보다는 수다에 가까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을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했음에도 말하고 다니지 못했던, 절친한 이가 안티페미니스트임에도 끊어내기가 어려웠던 경험을 털어놓고 공감하며 ‘이런 행사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우리 회원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겠지? 그분들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까?’

이때의 대화를 바탕으로 북토크의 방향을 ‘페미니스트로서 서로의 삶에 공감하고 힘을 받는 자리’로 설정한 후, 제목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다. 페미니스트라면 한 번쯤 겪는 고립의 경험을 안전하게 털어놓으면서 동시에 책의 저자에게 지혜를 구하는 이미지를 모두 담아내는 문구를 떠올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종일 머리를 짜내고 나서야 문득 떠오른 것이 ‘페미삶담소’였다.

페미삶담소, '페미니스트의 삶에 대한 담소'와 '그 삶 속 어려움을 상담하는 자리'라는 이중적 의미를 담았고, 우리 상담소의 이름과도 운율이 비슷해 잘 어울렸다. 무엇보다 최영미 시인의『난 그 여자 불편해』로 풀어낼 일상적인 이야기와 신경아 교수의『백래시 정치』가 던져줄 앞으로의 삶의 전략을 모두 아우르는 제목이었다.

공간의 연출에도 공을 들였다. 행사장에 들어왔을 때 공간으로부터 받는 첫인상이 따뜻하고 편안하길 바랐다. 마치 정말 상담소처럼, '여기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인상. 북토크가 진행될 이안젤라홀은 사방이 회색이고 공기가 차가워 그런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지만, 상담소의 모든 재원(매브릭 소파, 에펠의자, 목제 테이블, 조화 화분 등)을 충동원해 열심히 꾸몄다. 참여자와 저자 간, 그리고 참여자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자 책상도 모두 접어 한쪽으로 밀어두었다. 거기에 홀의 주백색 전구가 분위기를 더해 주어, 꽤 마음에 드는 공간이 완성되었다.



_ 준비팀의 솜씨로 꾸며진 이안젤라홀 정경

그 위에 그려진 두 번의 북토크는 다른 듯 비슷한 결이 있었다. 최영미 시인이 때로는 냉소적이고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일상을 담아낸 『난 그 여자 불편해』는, 규범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소소한 행복을 채워가는 법을 이야기한다. 풍족하면 물론 좋겠지만, 주어진 것 내에서 최대한의 행복을 찾고 그것이 어려우면 돌아가기도 하며 나만의 ‘고유한 삶’을 꾸리는 그만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신경아 교수의 『백래시 정치』에서는 앞서 최영미 시인과 이야기한 개인의 삶에서 확장하여, 백래시에 대항하기 위한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생각해 보았다. 페미니즘을 향한 비난과 낙인이 갈수록 심화하는 지금, 그는 개인의 실천 방안으로써 더더욱 친구, 동료와 모여 여성이 겪는 불편함과 폭력, 부당함을 일상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작은 연결망, 연대망이 모여 여성운동의 힘을 키우고 결집할 씨앗이 되는 것을 상상하는 시간이었다.



_ 페미샵담소 2회차, 뜨거운 열기의 현장

이번 북토크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가져갔을까?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용기, 감사, 투지 등 제각기 다르겠지만, 웬지 모두가 ‘썩이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굳은 의지만은 분명 가져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안전함, 공간이 주는 아늑함, 저자는 물론 다른 참여자의 말 또한 경청하는 따뜻함.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보다 분투하는 삶을 먼저 살아본’ 그리고 ‘나처럼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또 다른 이를 마주하는 얼굴들 사이로 응원과 연대가 오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돌아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 경험과 응원은 재확산하여, 또 다른 연결망을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더 자주, 더 많이 만나야 하는 이유이다. ☺

자원활동가 은화님의 <페미삶담소>
후기 보러가기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이 아직 없다.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이 재생산되는 현실을 끝내자

오매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17년 5월 5일 피해자는 친구들과 첫차 다닐 때까지 클럽에서 있기로 하고 같이 가방을 맡겼다. 이때 예상하는 이가 있을까? 가방을 두고 친구들과 연락도 끊긴 채 알 수 없는 지역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다음 날 눈을 뜨게 되는 상황. 기억과 통제가 자기를 이탈한 상태에서, 그 앞뒤에 일어난 성적 침해를 겪고,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태를 지난 후 피해자는 신고했다. 그리고 6년. 수사, 재판 과정에 규명과 처분을 구했던 피해자는 2023년 4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무죄 확정을 목도했다. “너무 억울해요” 대법원 앞에 선 피해자는 절규했다.



가해자는 주장한다. 클럽에서 성관계에 합의했고, 스킨십도 했다고. 피해자는 말한다. 클럽에서 친구를 찾아 이동하던 중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해서 한 잔을 마셨는데 그 후로 기억이 없다고. 피해자와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것은 누가 보증했을까? 가해자 친구들이다. 가해자와 함께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차에 싣고, 차에서 모텔로 데려간 친구들 말이다. 가해자는 친구 A에게 전화로 말했다고 하는데, A에게 전화한 내역이 없다. A는 전화기가 고장 났다고 진술했지만, CCTV에는 그가 전화기로 통화하는 모습이 나온다. 피해자가 가해자와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것은 사실인가? 그것을 A가 들었다는 게 사실인가? 법원은 이를 규명하지 않고 가해자 주장을 인용한다.

피해자는 기억이 삭제된 시간에 가해자는 '합의'로 기억하는 언행을 피해자가 했다 치자. 그것은 합의인가? '합의'는 그런 상태에 명명되어도 되나. 술자리에서 사람들과 있어 본 이들은 떠올려 보자. 혹은 잠에 빠져들어가

는 누군가를 두고 놀던 자리를 떠올려 보자. 상대방이 또박또박한 목소리로 어떤 문장을 구사했다 해도 앞뒤 안 맞는 이야기를 이어 하거나, 묻는 말에 엉뚱한 답을 하거나, 반대로 묻는 말에는 잘 답하지만,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면 “내일 기억 못 하겠군”, “만취했네” 혹은 “잠꼬대구나” 판단한다. 그러나 많은 준강간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패싱아웃’, ‘블랙아웃’이라는 이름 붙여가며 행위자/가해자가 주장하는 “상대가 의사를 표명한 줄 ‘알았다’”(심신상실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고 고의성을 조각해 준다.

가해자로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인 줄까지는 몰랐고 성관계에 합의하는 언행을 들었다고 치자. 그래서 스킨십도 했다고 치자. 그 후 친구에게 차 가져오라고 해서 태우는 장면을 보면 CCTV상 네 명의 남성이 고꾸라진 한 여성을 끌고 간다. 클럽 안에서는 심신상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장면은 명백하다. 다음 날 눈 뜬 피해자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묻는다. 가해자는 ‘술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택시 타고 이동하다가 왔다’고 한다. 피해자가 택시를 탔는지 자가용을 탔는지 기억 못 하는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날의 CCTV를 피해자 측은 1심 재판이 끝난 이후에야 확인했다. 납치도 아니고 간음유인이라는 경찰의 혐의명을 검찰은 불기소했고, 법원은 재정신청도 인정하지 않았다.

가해자의 거짓이 드러나는데도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하는 가해자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다. 가해자 측은 숙박업소 직원들에게 ‘사실확인서’라는 것을 받아왔는데, CCTV와도 전혀 다르게 적혀 있는 이 종이의 신빙성도 규명하지 않았다. 당시 상황을 녹음했다는 가해자의 말을 듣고도 초기에 이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고, 가해자가 멋대로 녹취록을 만들어와서 냈다

가, 녹음파일이 사라졌다고 했다가, 통째로 녹음했다고 했다가, 기억이 잘 못되고 실은 녹음을 껐다 껐다 했다고 말 바꾸는 식으로 결국 피해자가 자신과 친밀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주장을 펼치는데도 수사기관, 재판부는 이를 방치하고 인용한다. 2심에 이르러서야 녹음의 모두를, 침묵까지 표기하도록 요청해서 도착한 녹취록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피해자는 가해자의 물음에 30초 이상 침묵하거나 숨만 쉬는 등 아직 심신미약에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었음을 알 수 있다.

검찰, 법원은 2017년 5월 5일 클럽에 들어간 이후 6일 숙박업소에서 나와 7일 신고하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화간'으로 보는 렌즈를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 팔로 밀쳐내고 몸으로 저항하였지만, 강간을 당하려고 할 때, 성병이나 임신이라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콘돔이라도 사용해라'고 했던 말은 그 증거로 포집된다. 카카오톡과 통화내역 등에 남긴 그 무수한 절박한 시간을 읽어내지 않은 채 '콘돔'이라는 단어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성적자기결정권이라는 인권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탈되는지, 기망되는지, 피해자가 힘들게 제출한 모든 자료 속에서도 읽어내려고도 하지 않은 경찰, 검찰, 재판부는 남성중심적 강간 신화의 공범이고 보조자였다.

피해자 그리고 조력자인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오랜 시간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 변호사는 대법원 무죄 선고 이후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준강간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개최 토론회도 7월 4일 열렸다. 피해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릴레이 리포트에 생존자의 글을 썼다. 6년을 기다려 온 피해자의 글 한줄 한줄에는 지금 한국의 성폭력, 성적자기결정권, 성적 동의, 진술 신뢰성의 편향, 남

성중심적 성문화와 수사 재판기관의 과제가 담겨있다. 한 부분을 함께 다시 읽고 싶다.

“

누구도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수단화, 도구화할 순 없다.
폭행, 협박뿐 아니라 무력행사가 있건 없건,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면 합의한 관계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동의는 효력이 없다.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이제야 사회에 인식되기 시작했듯이
‘동의 없는 강간’ 또한 법과 사회에서 당연히 통용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결과에 순응할 수 없고,
순응하지도 않을 것이다.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 그날의 일을 나는 어떻게 이름 붙여야 할까?
피해자라는 허울뿐인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
혹시 성폭력의 판단기준이 ‘동의 없는 성적행위’였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까?
나는 아직도 그날 일어났던 일의 이름을 모른다.
”



‘시민 혈세 도둑’으로 매도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보조금을 둘러싼 정치적 의도

란 |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정부가 시민단체를 ‘불법 단체’라고 매도한 것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광우병국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한 여성단체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취소를 한 전적이 있었죠.

반복되는 시민단체 깎아내리기, 타당한 주장인지 살펴봅시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된 뉴스 제목들이 어마어마하다. ‘정부 보조금도 받는데 비영리 민간단체 3곳 중 1곳은 유령’, ‘보조금 빼돌려 손녀 말까지?’, ‘시위 참가 땀 일당 3.7만, 000단체 일자리 보조금 전용’, ‘민간단체에 새는 혈세, 부패 이권 카르텔 부숴야’. 뉴스 제목뿐만이 아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정권에 빌붙어 빨대를 꽂는 흡혈기생 집단”은 심판받아야 한다며 “진짜 시민단체를 모욕하는 가짜 시민단체를 몰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 “국민 세금으로 양성된 흉위병”이라는 윗기기도 부끄러운 원색적인 말들도 국민의힘에서 흘러나왔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각종 부정·비리 온상 확인’이라고 못 박았다.

시민 없는 시민단체의 혈세 도둑질, 범죄단체 등 각종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말 도둑에 가짜에 유명단체에, 횡령과 사적 이용으로 점철된 부정과 비리의 온상일까.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 길들이기, 그래서 말이 되는 거야?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이라며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 8천억 원에 대한 감사로 이중 총 1조 1천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 및 비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확인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이라고 밝혔다. 이중 보조금 유용과 횡령, 리베이트, 허위내용 기재 등 비위 수위가 심각한 86건은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내부거래 등의 300여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추가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이상하다. 첫째,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민간단체에게 지급된 6조 8천억 원 중 문제가 된 부정사용금액은 314억. 전체 지급액의 약 0.46%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조금의 부정사용금액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듯이 비영리민간단체 모두를 싸잡아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라고 주장하기에는 그 금액 정도가 너무나 적고 터무니없다. 이를 두고 ‘이권 카르텔’이라며 전 정부와 시민단체 간 모종의 협력관계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풍겼던 윤석열 정부의 주장은 더더욱 설득력이 없다.

둘째, 부정사용금액이 314억원인데 내년도 보조금 예산 5천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도 근거가 충분치는 않다. 삭감하겠다는 예산 5천억 원은 2022년도 보조금 총액 5조 4,446억원의 약 9.2% 정도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보조금 1조 7천억 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규모인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적발이 지속되어 왔지만 단 한 차례도 보조금을 삭감한 적은 없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가 또는 시·도 단위에서 이뤄져야 하는 공익목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으로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창의적이고도 전문성이 발휘되는 사업영역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3조에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 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셋째, 이러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공익목적 사업에 지원하여 재정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데, 선정 또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같은 법 제7조3항), 위원은 국회의장 또는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고 행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촉한 3인 등으로 되어 있어 선정 과정에서 부정이나 비리가 있기 어렵다. 사업의 집행과정 또한 관련 부처 또는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진행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 추진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집행 영수증과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만약 부정과 비리가 문제라면 선정부터 집행까지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안부 또는 관련 부처, 지자체가 절차와 근거에 맞게 그 역할을 충실히 했는지도 따져보아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적대하고 호도하며 돌파하려는 것이 바로 핵심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현황에 대해 발표하면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과 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3대 민폐로 규정하며 이를 근절하겠다고 선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에 발맞추어 6월 1일 공공개정환수와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를 처리하는 공공개정환수관리과를 출범했고, 보조금 부정사용 신고 포상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6월 15일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만 1195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등록요건 전수조사 결과, 이 중 3,771개 단체(33.7%)는 등록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단체로 이 중 2,809곳은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를 하면서 행안부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유령단체가 아닌 실체가 분명히 있었다.”, “범정부 차원의 감사는 민간단체 전반을 대상으로 온갖 유형을 총망라하다 보니 여러 부정 지급 사례가 나왔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관련법상 심사위원회의 평가와 체계가 있어 보조금 부정이나 누락 사례는 별로 없다.” 물론 이런 행안부의 설명은 뉴스 헤드라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2008년 촛불 정국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배후를 시민단체로 보고 대표적인 특정단체를 표적 삼아 압수수색을 하고, 단순한 회계상의 실수를 커다란 범죄인 양 부풀려 전체 시민사회단체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보복성 수사를 한 바 있다. 2009년 당시 상담소는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사업에서 4년 만에 제외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는 보조금 신청을 보이콧했다. 정부의 정책의제

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통제 의도는 해당 정부의 아슬아슬한 위기 상황을 대변하기도 한다. 2년이 넘도록 지속된 촛불시위에 돌파구가 필요했던 이명박 정부가 그랬다. 2022년 10월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참사에 대한 책임, 건설노동자들을 겨냥하며 이뤄지는 전방위적인 노동 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시한 지독한 백래시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거센 '퇴진' 요구를 넘어설 돌파구는 윤석열 정부도 절실히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제36주년 6.10 민주항쟁기념식을 주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권퇴진을 구호로 내건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2007년 6.10 민주항쟁이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에 불참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지나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을 겪고 있다. 정말 비영리민간단체는 시민혈세 도둑이고 흡혈집단이며 유령단체인가? 시민들이 만들어 온 성과들을 뒤엎을 만큼 대단히 심각하고 문제적인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적대하고 호도하며 윤석열 정부가 돌파하고자 하는 핵심을 제대로 보자. 그리고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퇴행에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부릅뜨자. 

2009년 <이제 '달빛시위'도 못하게 할건가: 국가보조금으로 장난치지 말라>
바로가기



- 1월** 1/20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 22주기 장애인권리입법예산 쟁취를 위한 전국집중결의대회
1/31 제32차 한국성폭력상담소 정기총회
- 2월** 2/2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창립식
2/7 기자회견 <성소수자 차별 조장하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탄>
2/8 제 1582차 수요시위 (1582번의 수요시위, 우리는 변하지 않았다)
2/10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및 기자회견
2/15 서울사회서비스원 황정일 원장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가해 규탄 및 사과 촉구 기자회견
- 3월** 3/4 3.8 세계여성일 날 기념 제28회 한국여성대회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3/24 열린터 또우리모임
3/3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1회차 <‘구조적 성차별 없다는데 무슨 여성할당제?’ - 평등의 관점으로 적극적 조치 다시보기>
- 4월** 4/4 (가) '벗방' 피해자 공동지원단 발족
4/6 4월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살담소 "나, 어떻게 살아갈까?" <① 기쁨도 저항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쓰기>
4/9 '낙태죄폐지 2주년 공동행동 집회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4/13~4/14 한국성폭력상담소 상근활동가 워크샵
4/20 4월 회원특강 북토크: 페미살담소 "나, 어떻게 살아갈까?" <② 변화 뒤에 오는 반동, 백래시 시대 페미로 사는 이를 위한 공부>
4/27 사법부가 외면해온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
4/28 <윤석열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4/28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뭔다
상담소

5월 5/2 법률팀 발족

- 5/4 여성주의 집단상담 <상처를 힘으로 전환시키는 말하기> 시작
- 5/8 윤석열 정부 1년 성평등 정책 평가 및 제언 토론회 <표류하는 성평등 정책 방향키 잡기>
- 5/10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캠페인 <분노한 여성의 목소리를 들어라 Hear Us Roar> "젠더불평등을 폐지하라, 여가부 말고." 기자회견
- 5/11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리포트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시작
- 5/16 가정의 달맞이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문제해결을 여는 고민 나누기 <다른 일상을 살아갈 권리>
- 5/16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 1년 기자회견 <시민이 지켜낸 여성가족부, 걸림돌 장관은 빠지고 성평등 실현에 앞장서라>
- 5/17 2023 국제성소수자 혐오반대의날 투쟁대회
- 5/19 균형법 제92조의6의 조속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변화는 멈출 수 없다. 위헌 결정 지금 당장>
- 5/22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국민의식 설문조사 '원치 않는 설문조사' 시작
- 5/26 열린터 포우리모임

6월 6/14 우울증 갤러리 이슈대응집담회 <'우울증'이 닳아 되지 않으려면>

- 6/21 유산유도제 도입·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다수인민원 제출 기자회견
- 6/23 토론회 <성인지 감수성> 그 후, 성폭력 판결 돌아보기: 2021년 하급심을 중심으로>
- 6/27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 <변론은 끝났다. 2차 가해를 멈춰라!>
- 6/28 한-일 활동가 웨비나 <유산유도제, 재생산 건강과 권리 이슈들>



피해 이후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의 과정을 걷는 생존자의 이야기

망가진 것을 고치는 나의 방법

선하

<열린터 다이어리>와 <생존자의 목소리>는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의 이야기를 에세이, 시, 그림 등의 형식으로 실는 코너입니다. 본 코너는 생존자의 고유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창구이며, 교정 교열 외의 편집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담소의 다른 글과 관점도 논점도 조금 다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상담소와 열린터에서는 쉽터에 머물렀던 전 생활인을 '또우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또 만나요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린터에서 원고 작성을 의뢰받아, 글을 쓰게 된 또우리 선하라고 합니다 +.+ 글 쓰는 것이 익숙지 않아,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행히도 주제를 정해주셔서 처음 풀어가는 이야기를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사실 완벽하게 일상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다만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노력해 온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선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하려 해요!

흔적 지우기

퇴소 후 친족성폭력 피해자인 저에게 가장 고민이었던 일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이었어요. 가족이라서 저의 신상과 실 주소지를 주민센터에 가면 쉽게 알아낼 수 있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주민등록열람제한을 신청하고, 가해자가 물려준 성과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누군가 가족과의 인연은 천륜이라고 하던데, 저에겐 끔찍한 소리입니다. (잡담 킷!) 이전부터 제 이름을 부모님이 멋대로 지어버린 것에 작은 불만을 품고 살아간 저는,,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하나 채우게 되었습니다. ^^

사실 재판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지만, 저는 형사재판 하나로도 벅차서 재판 후에 개명을 신청했어요! 저의 훌륭한 서포터, 변호사님을 만나게 된 것은 민사재판을 하면서였는데요! 추가로 개명신청과 성분변경을 같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ㅎㅎ 하지만 과정이 복잡하여 힘들었어요~ 개명 후 성분변경으로 민증을 3번이나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하..

1. 개명하였다.
2. 개명 후 민증을 보니 원하는 한자가 아니어서 한자만 개명을 하였다.
3. 성분변경까지 완료!..

아! 알고 가야 될 것은 개명과 성분변경을 다릅니다! 개명은 성씨 제외하고 남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고 한자도 동시에 바꿀 수 있어요! 성분변경은 '부, 모 둘 중 하나의 성'으로 바꿀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용에 문제가 없는지와 자신이 바꿀 성을 가지고 있는 부 또는 모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네요! 만약 성분변경을 한 후 형제자매와 성이 달라진다면 형제자매의 의견서도 받아야 하는데요. 저는 동생과 연락이 닿아서 의견서를 동생에게 받았답니다. 재판 후에 민증을 발급받고 난 후 끝난 게 아니라 휴대폰, 은행, 체크카드, 각종 어플 및 사이트의 개명도 같이 해야 해요. 6개월에 걸쳐 완성된 새 이름은 마음에 꼭 드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

꿈들의 묘지로 가는길

개명 관련 재판이 바쁘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저는 미래를 그리며 먹고 살 궁리를 했는데요! 어릴 적 저는 음식이라는 것이 너무 좋고, 맛을 느끼고 찾는 것이 좋아서 조리 전공 특성화고에 진학을 했었어요. 그러나 조기 취업 후에 다시 만나게 된 가족이 가해자가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전공에 쏟아부은 고등학교 생활 3년은 없던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열림터에서 화장하는 것이 너무 좋던 저는 메이크업을 전공으로 배워보고 싶었고, 열림터에서 직업훈련을 다니게 되었지만 얼마 안돼서 자해로 인해 직업훈련을 그만두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퇴소 후 자립하게 되면서 직업훈련을 다시 이어가며 국비 지원으로 국가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후 돈을 더 보태서 메이크업 관련 자격증도 2개 더 따게 되었어요! 자격증을 따고, 학원에서 소개해 주신 메이크업 실장님께서 어린이 뮤지컬에서 급하게 사람을 구한다 해서 가게 된 것이 첫 메이크업 경험이었어요.

여기까진 나쁘지 않았지만.. LH 임대주택에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사 후에 집 근처에서 일하려고, 면접에 치이고 살았었어요.. 강남에 샅들이 촘촘한 거리를 거닐며 면접을 다니고, 방송국 본사에서는 테스트 시험까지도 전해 보았으나 결과는 처참..하여 현재는 메이크업은 잠시 접어두고 주민센터에서 연결해 주는 자활 활동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지금 시기에 돈을 바짝 모아 임대주택 계약 후에 넉넉히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연락이 온 곳들은 '수습기간 동안은 월 100도 안 되는페이'(2023년 맞나?:: 싶을 정도)와 '3개월 수습기간 후 직장(강남) 바로 근처로 이사한다'는 이상한 전제 조건들로, 상황과 맞지 않게 굴러갔어요. 미래를 그리면서 실현하려면 실력과 경력을 쌓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기회가 너무 아깝고,, 지하철 1시간 출퇴근 거리이다, 생각과는 다른 업무환경, 퇴근 후 자유를 갈망하며 허덕일 모습

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마음속에 묻어두기로 했어요. (이렇게 제 꿈들은 묘지로 가서 묻어졌지만) 사실 더 재밌는 일이 세상에 많고, 여러 경험과 자활 활동을 하면서 천천히 생각해 보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결정이었어요!

행복으로 집 꾸미기 1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과 살짝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LH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가장 안정적인 최고의 집.”까지는 아니지만 전세로 있고 퇴소 후부터 순서대로.. 타인과 같이 있는 셰어하우스》반지하》원룸》투룸(?)으로 진화했어서 너무 기뻐요! 이사 후에 갑자기 전세사기 관련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안심할 수 있었어요. (=v=) 그래도 이 정도면 나름 안정적인 집인 것 같아요! 벽지도 새로 된 벽지였고! 화장실 타일이나 천장, 벽들에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구멍뚫기, 못질은 괜찮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레이스 커튼도 달았답니다.ㅎㅎ 원래 있던 하자나 보수는 처리도 해줘서 너무 편해요! 가구를 구입하는데 큰돈을 썼지만, 이제는 미어터지는 화장품 친구들을 정리할 수 있는 화장대랑 폭신하고 마음에 드는 침구와 침대, 그리고 꿈의 간식선반까지!! 만족하며 지내는 중이에요!^^ 나중에 **행복으로 집 꾸미기 2편**에서는 침실 한켠에 러그와 커피테이블, 조명, 소파까지 놓아두려고 해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서 좋아요♥

퇴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하며 달려왔어요.. 물론 노력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 속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려 하는 자신을 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전에는 끈적하고 무거웠던 속마음을 펼쳐내지 못해 잠식당하고, 그로 인해 피폐해진 상황이 너무 싫었지만 여러 과정을 겪으며 생각을 바꾸고 있


어요. 어떨 때는 과자비닐 뜯는 기분으로, 아니면 나른한 날 창밖 구경을 하는 기분으로 바꿔버리는 방법을 더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끔 자기혐오에 빠질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둔하게 있지 않고 이제는 최대한 빨리 벗어나려 해요. “그런 생각 시작하면 밀도 끝이 없고, 본인은 힘들고 곁에 있는 사람은 화만 늘어간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먹은 후였는데요. 그 맵고 따끔한 말 한마디가 정신을 차리게 된 큰 계기였죠. 마음이 힘든데 남한테 욕까지 먹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서 그 후부터 나쁜 감정의 끝을 빨리 만들기로 했어요.

슬픈 기분이 들어서 속으로 욕하고, 회피하고, 정신적 자해를 하던 것이 이제는 슬프면 실컷 욕하고 할 말이 없어질 때까지 울고, 다 울고 나면 “정신 차려야지.. 저녁 뭐 먹지?”라며 좋아하는 플리를 틀고 다시 차분한 기분으로 바꿔주면 되는 것이었어요. 적어도 저한테는 더 편한 방식이었어요.

사실 거울을 보면서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이제부터 천천히 해나가면된다**고.” 혼잣말도 했어요. “나는 ○○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마음이 안정되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약간은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 소중한 과정들이었어요.

열림터에서 좋은 기회로 제 이야기를 풀 수 있어서 기뻐어요! 소식지가 나오는 것도 몰랐었는데 소중한 소식지에 글 올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렇게나 써버렸지만 제 글이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 

한 때 종자기*라고 생각했던 친구의 배신

유하

중학교 3학년 때 만나서 친구가 되어,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엄마가 반대하셨지만, 평생 친구가 되기 위해서 고등학교가 인생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설득했어요.

한때는 고사에 나오는 '종자기' 같다고 생각했어요.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의 강간을 도우려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절친을 자처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차용증 없이도 돈을 빌리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했어요. 강간범(친구의 남편, 강간을 알고 나서는 강간범으로 불려요.)이 모르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달라면 더 묻지 않고 회사에서 서류를 떼어가며,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빌려줬어요.

* 종-자기(鍾子期): 중국 춘추 시대 초나라 사람(?~?). 당시 거문고의 명인이었던 백아(伯牙)의 친구로서,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잘 알아들었다고 한다. 그가 죽자 백아는 자기의 음악을 이해하여 주는 이가 없음을 한탄하여 거문고 줄을 끊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출처: 네이버 표준국어대사전)

첫 번째 강간은 2012년 12월 첫째 토요일에 친구가 강간범 생일을 같이 축하하자며 초대했어요. 그때는 이미 강간범은 멀리하고 있었고, 친구도 한 달에 한 번 겨우 만나던 때였어요. 친구는 제 동생과 셋이 자신이 하는 다른 모임처럼 ‘계’라도 하자고 했어요.

동생과 함께 초대받아 친구의 집으로 갔어요. 제부가 송년 모임이 있어서 생일모임에는 못 왔지만, 회식이 끝나고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동생 집과 제 집이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으니까요.

제부 전화가 왔을 때, 정확한 시각은 기억나지 않지만, 친구와 강간범이 술을 더 마시자고 잡았어요. 강간범이 택시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요. 제부가 술을 싫어했기 때문에 동생과 저는 그러자고 했어요. 연말이고, 생일이었으니까요. 술자리가 끝나고 나오면서 친구에게 선물했던 벽시계를 봤어요. ‘3시구나’ 하면서 친구의 집을 나왔어요.

강간범이 동생을 먼저 내려줬어요. 동생은 뭔가를 느낀 건지 워낙 집이 가까워서 그랬을 거라 생각했지만, “언니, 잠들지 마.”라고 깜박 잠든 저를 깨우고 내려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을 때 시계를 봤는데 3시 40분경이었어요. 10분 정도가 비었지만, 남편의 강간을 돕기 위해 친구가 술을 권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강간하기에 10분은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계획하고 생일 초대해서, 그랬을 리는 없다고, 그 정도로 쓰레기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후에 그 부부가 보여준 행태는 쓰레기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요. 친구가 결혼하고 10년 정도 남편 없이는 못 산다면서 강간범에게 자신이 죽은 후에

죽으라는 말까지 했어요. 언제부터인가 그 말을 더이상 하지 않았지만요. 강간범이 성매매하는 걸 알고 같이 있는 술자리에서 화를 내기도 했지만, 강간범이 인상 한 번 쓰니까 친구의 분노는 금방 사라졌어요.

2차 성폭행이 있던 날에는 친구가 아침에 연락해서 강간범과 점심을 같이 먹어달라고 했어요. 점심을 먹은 후에는, 일주일 전에 친구가 제게 사준 와인을 들먹이며, 제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했어요. 속으로 ‘치사하게 이러려고 와인을 사 준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있는 나를 불러내서 세일하는 와인을 사 주겠다고 하더니, 같이 점심을 먹어달라고 하고요. 집에 들어온 강간범은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아랫도리를 벗고 성기를 들이밀며 “너도 좋았잖아!”라고 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날 강간했구나. 이미 강간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고, 눈앞에 성기를 들이키는 강간범은 공포였어요.

그래도 와인을 사주면서까지 강간을 도울 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는 강간범이 성매매할 때도 힘들어했으니까요. 그래서 간신히 화장실로 피해 친구에게 전화했어요. 그랬는데 친구가 오지 않겠다고 해서 “네 남편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데 안 온다는 거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 길로 친구는 전화를 끊고 우리 집 앞 사진만 찍어 보내고 도망갔어요.



_ 강간범의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강간범은 제가 카카오톡으로 한 사과를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어플을 삭제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는 혹시 나를 죽이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친구가 강간범에게 “비싼 변호사 사서 유하 밟아줘”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믿어지지 않지만, 친구는 저를 짓밟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가해자의 범죄를 덮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성폭행 사건 재판은 강간범에게 불리한 판사와 검사를 피하며, 빠르게 상급법원으로 진행되어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어요. 팔에 잡아 끌어서 생긴 손가락 자국이 뚜렷한 사진이 있는데도요.

모든 걸 알고 있는 제 동생에게 물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제 동생이 “사람을 너무 믿었어.”라고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강간범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서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친구까지 그럴 줄은 몰랐어요. 너무 화가 나기도 했고, 와인까지 사주며 성폭행을 도왔던 친구가 원망스러웠어요.

강간범들의 딸도 위험한 것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강간범이 사과한 카톡을 강간범들의 딸에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성폭력상담소 링크와 함께요.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상담소를 모르니까요.


이 모든 사실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더 있을 테니까요. 성폭행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고, 부인이 도와서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재범은 더 쉬울 테니까요.

많은 언론사에 제보했지만, 너무나 많은 범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네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많아서 방송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엔 생각하지 않지만, 신고한 후에는 더 힘들어져서 여러 번 자살을

생각했어요. 강간범 부부를 대신 만나며 도와주었던 동생도 힘들어하는
게 보이고요. 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요?

그래도 여전히 힘이 되는 가족이 있어서 버티고 있지만, 남은 삶은 잘 살
고 싶어요. 피해자가 아니라, 그냥 온전한 저로요. 

#Metoo, 나의 외침은 끝나지 않았다.

이유나

제 이야기를 읽어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3 기말고사를 마치고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큰삼촌이었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갑자기 난폭해졌습니다. 너무나 충격을 받은 저는 달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성폭력 앞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살아남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겪고 나서야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따라와 목숨을 위협받고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살기 위해 소리쳐 봤지만, 계속되는 살해협박에 완전히 얼었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은 송두리째 부서졌고 두려움에 지내는 날뿐이었습니다. 내게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의 활발한 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스스로가 나약하고 쓸모없게 느껴졌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미래도 꿈도 전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쳤지만, 옆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마주 칠까 봐 늘 뛰며 등하교했고 거실을 보기 싫어서 문을 잠그고 충격과 우울감이 밀려오면서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분노, 무력감, 슬픔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19층 베란다 난간에서 있기도 했습니다. 그 고통은 지금도 한구석에 남아있습니다.

물론 당시 피해사실을 즉각 알렸지만, 성인 남성인 삼촌이 여중생 조카를 사람으로서 존중이 아닌 욕구를 해소하려 괴롭히는 폭력으로 봐야 하는데 가족관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압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알렸을 때는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은 저에게 “얼마나 힘들었니?”가 아니라 오히려 왜 먼저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어 제 고통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친척의 힘을 빌려서 제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하였으나 사과하지 않아, 가해자를 신고하니 공소시효 10년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어렵게 서울 대교회에 목사 면직을 요청했습니다. 즉각 중징계 될 줄 알았던 일을 5년 반 동안 홀로 싸웠고 목사 면직되었습니다.


곧바로 이 사건에 대해 수많은 신문 기사가 쏟아져 나왔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힘내시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 일을 저지른 사람이 나쁜 거지. 왜 내 잘못이 아닌데 중학생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박탈당한 건데 내가 고통스러운 사건을 겪었다고 계속 힘들어해야만 할까?’ 하며 잊으려거나 극복하려고 무리한 노력은 하지 않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아주 천천히 회복했습니다.

평범했던 중학생의 일상이 순식간에 위험한 상황이 되어 이 자리에 못 서 있을 뻔한 제가 어떻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

었던 걸까요. 가해자를 목사 면직을 시켜서가 아니라, 성폭력생존자로서 사회가 변화될 때까지 저의 미투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언제든지 #metoo운동, 공폐단단(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운동 그룹)에 동참하여 함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성폭행이 만연한 사회인 것을 이슈화해야만 사회가 변합니다. 여성가족부 상담이 1년간 3만여 건인데 재판까지 간 가해자 실형은 1,600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나설 때 실형받는 가해자도 늘어날 겁니다. 침묵할수록 신고되지 않은 성폭력 범죄는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부당한 성폭력을 마주하고 성폭력에 대해 용감하고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다면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해, 구조, 정책, 교육, 제도, 재판까지 싹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난 이미 당했고 고통스럽지만,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이미 깨져버린 삶의 조각들을 모아 말하면 변화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성폭력생존자 미투운동에 나선 모든 분의 그 용기를 지지합니다. 함께 고민할거고, 함께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Dear. 나에게

비아

나에게 가족은 사랑을 가득 갖고 머무르려고 애썼던 곳이다. 30여 년을 그렇게 살았다. 어렴풋이 가족이 이상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썼다.

어느 날, 성폭력과 관련된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너졌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공간에서 폭력을 사랑으로 위장하여 나를 난도질한 것이, ‘차라리 내가 죽어서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취해서 내가 애썼던 사랑을 붙잡고 무너지지 않게 버텼다. 나의 바람과 달리 결국은 무너졌다.

신기했던 것은 무너짐과 동시에 난 죽어간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한 행위를 마주할수록 난 세뇌에서 빠져나와 살아났다. 내가 꾸역꾸역 채워왔던 그들의 사랑이 빠져나가면서 나는 채워졌다. 그리고 난 무엇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사랑하고 싶은지, 무엇에 사랑받고 있는지, 무엇에 사랑받았는

지를 아주 조금씩 알게 되었다.

나는 토끼를 사랑한다. 나는 햄스터를 사랑한다. 나는 바다를 사랑한다. 나는 꽃을 사랑한다. 나는 내 글씨체를 사랑한다. 나는 내 귀여운 새끼손가락 손톱을 사랑한다. 나는 내가 죽고 싶을 때 옆에서 내 손을 잡아준 사람들을 사랑한다. 나는 내 마음을 사랑한다. 나는 나의 용기를 사랑한다. 나는 복스럽게 먹는 날 사랑한다. 나는 나의 두려움을 사랑한다. 나의 불안도 사랑한다.

마주해야만 지나가는 것들이 있다. 마주하는 과정이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난 그 과정이 아주 지난하고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한다. 나에게 성폭력이 그러한 것 같다. 절대로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지만 마주해야만 하는 것. 나는 마주하고 지나갔는데 또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것. 진짜 질리고 싫다. 이상하고 구질구질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주한 뒤 만나게 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사랑이다. 내가 사랑받는 것도 알게 되고,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고 싶은 것을 알게 된다. 엄청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사소하지만 내 마음에 남는 순간들이 쌓여가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겠지?

긴 시간을 성폭력과 폭력 속에서 살았기에 어떤 부분은 낫지 않고, 비오는 날 무릎이 쭈시는 것처럼 아프고 괴롭다고 계속 소리 낼지도 모른다. 지금은 지긋지긋하지만 (예전엔 죽이고 싶었지만, 지금은 지긋지긋하다니 다행이다) 시간이 지난 뒤, 사랑하는 과정이 쌓여갈 때, 지긋지긋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날

바라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들이 행했던 폭력과 왜곡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작년 8월. 난 가족이었던 가해자들을 만났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었다. 다행이면서 슬프고 너무 아프고 괴로웠다. 난 나의 여러 마음이 이해되지만, 어떤 부분은 내가 너무 싫고 밉다. 그 마음까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지금껏 걸어온 용기로 사랑으로 걸어갈 수 있길 바라며.

내게 기대어 조각잠을 자던
그 모습 그대로 잠들었구나
무슨 꿈을 꾸니
깨어나면 이야기해 줄 거지
언제나의 아침처럼

- 아이유 님의 겨울잠 중에서

내가 미워하는 너에게.

From 비아. 

‘벗방’, ‘소라넷’, ‘N번방’을 관통하는 ‘욕망’

호랑 |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벗방’과 ‘소라넷’, ‘N번방’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성폭력 피해의 양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피해 양상은 달라지지만, 그 기저에 있는 ‘욕망’만은 동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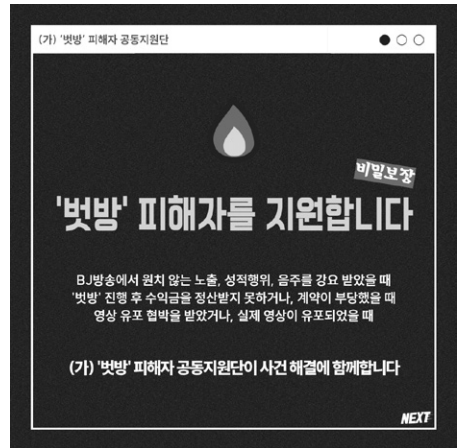
‘욕망’의 속성을 활동가의 시선으로 들여다 보았습니다.

금요일 밤, 한 라이브 동영상을 클릭했다. 검은 화면에 한 남성의 목소리만 나오는 영상에서, 남성은 곧 “채팅 앱에서 만나 10만 원을 주고 합의하고 데려온 여자”와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줄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다. 그런 말을 한지 시간이 꽤 됐던 것인지, 실시간 댓글에는 언제 시작하느냐는 원성이 자자했다. 10분 뒤 다시 클릭한 영상에서는 목소리의 주인공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한 여성과의 애무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다.

아마 이쯤 되면 반성폭력 활동가가 뭘, 도대체 왜 보고 있었던 것인지 궁금해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4월부터 다른 여성단체들과 함께 만든 “(가) ‘벗방’ 피해자 공동지원단”에 참여하게 되었다(이하 공동지원단). ‘벗방’은 이른바

'벗는 방송'의 줄임말이다. BJ들은 시청자의 요구에 따라 '과감한' 노출과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다양한 행위들을 한다. 짐작했겠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는 남성이며 BJ들은 여성이다. 벗방은 그저 몇몇 BJ들의 개별적인 실천이 아니다. 팬더TV, 로즈TV와 같은 일부 플랫폼들은 '벗방'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다. 올해 초 유튜브를 통해 벗방 BJ였던 여성이 계약과 촬영에서의 폭력과 착취를 고발하며 이슈가 되었고,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몇몇 여성단체들은 '벗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지원단을 꾸렸다.

BJ라고 생각하면,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알음알음 하는 것이라 고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이슈화된 '벗방' 피해자의 고백은 달랐다. 그녀는 일종의 매니지먼트를 하는 '엔터'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감금과 감시하에 방송해야 했다. 함께 올라온 폭로 영상에서 피해자는 약물로 의심되는 무언가에 취한 채 남성 BJ의 성추행과 폭력을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다.



_ 벗방피해자 공동지원단 출범 카드뉴스

해당 이슈에서부터 공동지원단이 시작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가 너무 막막했다. 공동지원단에 모인 모든 단체는 '벗방'이 문제이고, '벗방'에서 겪는 피해들이 엄청나리라 예측했지만, 어디서부터 이야기



— 고민을 나누는 벚방공동지원단 회의 풍경

를 시작해야 할지 오리무중인 상태였다. ‘벚방’을 주 수입원으로 삼는 인터넷 플랫폼을 규제하라고 해야 할까? 이슈화된 사건처럼 ‘원치 않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스스로의 ‘선택’으로 방송에 뛰어든 이들도 있지 않을까? ‘벚방’ 그 자체를 성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규제의 프레임 속에서 ‘벚방’이 더욱 음지화되고, 여성들은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지 않을까? 우리의 연대체가 ‘공동지원단’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 까닭은 꼬리를 무는 질문 속에서, 우선 ‘피해 지원’에서부터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채팅 앱에서 만나 10만 원을 주고 합의하고 데려온 여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자. 공동지원단의 회의를 두 번쯤 했을 무렵, 나는 조금 더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가장 유명한 ‘벗방’ 플랫폼인 팬터TV에 들어갔다. 홈페이지는 유튜브의 화면구성과 매우 닮아 있었지만, 다른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메인화면에는 썸네일 대신 “19”라는 아이콘이 띄워져 있다는 것이다. 회원가입과 성인인증을 거치고 나서야 영상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몇몇 방송은 여성들의 1인 방송도 있었지만, 한 명의 남자 BJ와 여러 명의 여성이 출연하는 방송도 있었고 앞서 말한 남성의 주도하에 여성과의 성행위(혹은 유사성행위)가 방송되는 것도 있었다.

모니터링을 하며 5~6년 전쯤 이슈가 된 소라넷이 떠올랐다. 다수의 남성이 한 여성을 타겟팅 삼아 성범죄를 모의하고 실천하며 중계하던 그곳. 물론 소라넷과 벗방은 매우 다르다. 술과 약물에 취한 여성에게 이루어지는 성폭력과 “10만 원을 주고 합의하고” 카메라 앞에서 서는 것은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욕망만은 매우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수의 남성이 한 여성을 관람하고 폼평하고, 성적 행위를 요구하며 만족감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 룸살롱, 단톡방, N번방과 닮아있는 그 ‘남자들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역겨운 욕망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나는 그 욕망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을 일상적으로 타자화하는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 글을 쓰기 며칠 전에도 나는 매우 공적인 행사에서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너희 테이블엔 여자가 많아서 좋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았다(나는 그 ‘많은 여자’ 중 한 명이었다). 여성은 어떤 위치에 있건 성적인 존재라는 발상을 일상적으로 만드는 기저에는 여성의 안녕과

욕구에는 관심도 없이 여성의 성을 매개 삼아 자신들끼리 희희낙락하는 문화가 숨어있다.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그 세계가 스마트폰 속에 ‘벗방’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가) ‘벗방’ 피해자 공동지원단은 생각보다 혹은 생각했던 것만큼 난항을 겪고 있다. 풀 보기 싫은 것들을 싹 다 없애라고 하면 좋겠지만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성매매가 증가한 현실이 알려 주듯이, 법적인 규제와 엄벌주의가 언제나 정답은 아니다. 이 작은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할지 공동지원단은 아직 머리를 맞대고 길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우리는 계속 걸어갈 것이고, 길을 발견해 낼 것이란 사실이다. 

벗방공동지원단 논평 <‘벗방’, 성차별적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바로가기



재입사한 기분! 첫 로테이션 대상자들의 소회

파랑 |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모든 활동가가 다양한 팀에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상담소는 팀 로테이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로테이션 제도 본격 시행 첫해인데요,
팀을 이동한 세 사람에게 소회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팀 로테이션 제도란?

한 팀에서 4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에 대해 상담소 조직 내 다양한 경험 및 여러 기회 제공을 위해 다른 팀으로 옮기는 제도.

오늘의 인터뷰이 소개

지희. 열림터에서 5년 활동 후 여성주의상담팀으로 이동하였다.

흥미가 가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유랑. 여성주의상담팀에서 4년 반 활동 후 성문화운동팀으로 이동하였다.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조직에서 활동하고 싶어한다.

파랑. 여성주의상담팀에서 2년 활동 후 열림터로 이동하였다.

열림터 회계 자리가 비어서 자진해서 일찍 팀을 옮기게 되었다.

팀을 옮긴 후 잠시 외로움에 시달렸다.

팀 로테이션한다고 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지희 _ 내키지 않았다. 열림터에 5년 있었지만 원래 야간활동가로 입사했고 1년 3개월 만에 주간 활동가로 보직 변경되었다. 또 주간 활동가 하면서 회계업무도 했는데 전체 업무 익히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내 입장에 서는 또 로테이션하는 것 같아서 못 한다고 버틴 것이 1, 2년 정도 되었다. 처음 입사했을 때 로테이션한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예상 못한 것도 있었다. 쉼터 열림터와 상담팀에서 피해자 직접지원하는 방식이 다르다. 열림터는 생활지원, 밀착지원, 세세하게 다 신경 쓰기에 퇴근하고서도 계속 생각하는데 상담팀은 내담자와 거리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저녁도 있고 주말도 있는 삶이 되어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니까 이래서 로테이션 필요했구나! 깨달았다.

유랑 _ 나도 입사할 때 로테이션한다는 말 못 들었다. 그때는 4년 이상 활동한 활동가가 많지 않았다. 연차가 다 엄청 짧고 금방 그만두고 했는데 요즘 활동이 안정되면서 오래 근무하는 사람이 늘면서 로테이션 제도가 여러 팀을 경험해 본다는 조직적 고민으로 나오게 된 것 같다. 4년 차쯤에 로테이션하기로 이야기가 되어 미리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 아쉬웠다. 상담팀에서 굵직한 사업들을 다 경험해 봐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쉬운 마음이 생겼다.

파랑 _ 입사할 때 로테이션한다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지만 당연히 로테이션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다른 팀에서 무슨 일하는지 살펴면서 활동해 온 것 같다. 나는 로테이션 대상자가 아닌데 열림터 회계 자리가 비었다길래 가겠다고 했다. 상담팀에서 피해자 직접지원 하면서 소진된 상태였으나 상담소를 그만두고 싶지는 않았다. 열림터에서도 피해자 직접지원을 하지만 회계가 주된 업무라면 좀 낫겠다 싶어서 지원했다. 뭔가 팀 이동을 하면서 소진된 스스로를 환기하는 과정도 필요했던 것 같다.

기존에 있던 팀과 바뀐 팀에서의 차이점?

유랑_ 장소도 2층에서 3층으로 달라졌고, 업무도 많이 달라져서 이직한 기분이다. 일단 다른 층에 있으니 상담부스 벨 소리가 안 들려서 좋다. 상담팀에 있을 때 내가 상담 부스 담당이 아닌 날에도 벨 소리가 울리면 신경이 많이 쓰였다. 상담팀이 주말에 일은 하지 않지만, 사건이 빠르게 진행되는 내담자가 있으면 일 생각이 나게 마련이다. 몰랐는데 성문화운동팀으로 옮기고 나니 상담팀에서 많이 지쳤었구나 생각했다.

파랑_ 근무 시간이 확 달라졌다. 상담소에서는 모두 같이 10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지만, 열림터는 8시 근무자, 11시 근무자, 야간근무자 이렇게 나눠 근무 시간이 다르니까 한 명이라도 휴가나 출장을 가면 상담 시간 나 혼자 있을 때가 있다. 상담팀이 시끌벅적한 것 보면 상대적으로 외롭게 느껴졌다. 그것 말고도 숙직할 때, 회계업무 자체도 혼자 하기에 초반에 많이 외로웠다.

지희_ 나는 열림터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어 좋았는데, 내가 그 시간을 좋아해서 열림터 떠나기 싫었나 보다.

유랑_ 아직 적응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직접지원할 때는 가만히 있어도 상담 부스 통해서 지원할 내담자가 생겼다. 성문화운동팀은 내가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처음에 어떤 일부러 해야 할지 잘 몰랐다. 사업 기획하기, 성명 쓰기 같은 일이라서 늘어난다면 한없이 늘어지지만, 또 쌓이면 한없이 일이 많아진다. 또 상담팀은 지원 과정에서 경험하면서 습득되는 것들이 있는데 성문화운동팀은 실무를 하려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공부해야 한다. 적극적인 합의 개념, 성적 동의를의 실행을 위해 뭘 해야 하는지 이론적이고 담론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지희_ 나도 그렇다. 열림터보다 상담팀에서 글 쓰는 일이 되게 많다. 상담일

지도 매일 쓰고, 상담 사실확인서니 연계 의뢰서니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

파랑_ 나는 사례 담당을 하지 않고 회계업무만 하는데 회계는 매달 시기별로 해야 할 일들이 정해져 있다. 이래저래 하다 보면 한 달이 금방 가 있다. 상담팀에 있을 때는 내담자의 상황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예상할 수 없는 범위의 업무들, 논의할 것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이라서 스트레스가 많이 줄었다. 굴곡이 없으니 약간 심심하다 싶기도 한데 사례 담당을 하게 되면 또 다르겠다 싶어서 지금 생활을 즐기고 있다.

나는 새로운 팀에서 이런 업무가 신기했다!

유랑_ 성문화운동팀은 매주 회의 담당하는 활동가가 기사 모니터링을 해서 매주 이슈 모니터링을 한다. 그래서 성문화운동팀이 이슈를 잘 따라가는구나 생각했다.

파랑_ 열림터는 활동가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식단표를 짠다. 그래서 뭘 할지 항상 고민한다. 반찬 종류 생각해서 식재료 사 놓는 것까지가 업무의 일부인데 그것 외에도 살림, 돌봄적인 부분들을 (일로) 많이 해서 살림, 돌봄이란 주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지희_ 상담팀은 신기한 업무보다는…… 내담자 지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방대하다. 특히 법률지원이 그렇다. 상담팀의 지원은 열림터보다 더 세세하고 구체화되어 있어서 배우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다. 상담팀에서도 공부 많이 해야 하는 것 같다.

계속 일하는 이유가 있다면?

유랑_ 현재 팀에서 법·정책 담당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이

런 자리에 토론자로도 가고 그랬는데 관련된 글 읽는 게 너무 재미가 없는 거다. 나는 확실히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런 점에서 상담팀 업무는 잘 맞았던 것 같다.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관련 간담회’ 때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 되게 좋았다. 사람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는 나!

지희 _ 관심 있는 것을 그냥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가장 커서 일하지 않을까. 현재 나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호기심이 향하는 곳이 여기다.

파랑 _ 다양한 조직에서 일해왔는데 여기가 제일 낫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로 힘들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일 못하겠다.’ 이런 것도 없어서. 나도 지희처럼 하고 싶은 일 위주로 살기도 했는데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보니까 더이상 하고 싶은 게 없다.

유랑 _ 인생 몇 회기이신가요? (일동 웃음)

파랑 _ 일하는 게 아직 재밌기도 하고 출근하는 것도 그렇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휴가 며칠 쓰고 다니다 보면 ‘빨리 출근해서 구글 캘린더 정리하고 업무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루 일상을 루틴하게 보내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또 너무 루틴해서 오는 지겨움도 있다. 지난달이었나 한 달 결산할 시기가 왔는데 하기 싫어서 미치겠는 거다. 그래서 막 몸을 배배 꼬면서 하기 싫다고 소리 질렀다. 그런데 동료들한테 말하면 또다시 괜찮아진다.


유랑 _ 사람이 중요하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좋다는 것도 장점이다. 배우고 성장한다는 느낌도 저에게 중요하다. 지희, 파랑과 합쳐진 이야기 같은데 나도 페미니즘을 따라와 보니 여기였고, 내가 좀 더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싶으니 여기였다. 상담팀에 오래 있다 보니 상담팀의 모든 사업 다 해봤다. 물론 오래 있어도 항상 새롭고 사례 너무 많고 논의할 것도 많지

만 이 정도면 많이 했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팀으로 옮겼더니 또 모든 게 너무 새롭다. 내가 알아야 할 게 너무 많고 그만큼 배우고 성장할 기회도 많아진 것 같기도 해서 이 팀에서 오래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다. 동료들과 노는 것도 너무 재밌고.

 **마지막으로 로테이션을 앞둔 활동가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은지?**

지희 _ 기존 팀에서 많이 소진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상담팀 오면서 한숨 돌리는 느낌이었다. 더 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일에 장단점 있고, 가보지 않으면 또 모르니까 한번 다른 분들도 경험하면 좋겠다.

유랑 _ 어떤 사람이든 어느 팀에 가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팀의 경험을 가진 사람과 만나게 될 때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 자신과 팀에게 좋은 에너지가 될 것이다.

파랑 _ 자기 팀 아닌 곳을 볼 때 힘들어 보이기도 해서 다들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가면 또 잘할 것을 알기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동물사랑단 경진의 합정동 생태관찰기

경진 |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상담소 건물 한편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있어요.
밥을 먹으러 오는 동물 친구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체크하고,
자리에 탐조용 망원경을 두고 다니는 동물사랑단 단장 경진.
그의 눈으로 본 도시생태계 관찰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물사랑단 단장, 활동가 경진입니다(아무도 단장이라고 불러준 적은 없는데 글을 작성하는 김에 한 번 써보았습니다). ‘동물사랑단’은 상담소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활동가들을 부르는 비공식 용어입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활동가이지만, 모두 동물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죠. 동물사랑단 활동가들은 하루에 한 번은 꼭 일상에서 만난 동물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스몰토크가 되기도, 동물권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는 토론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상담소의 일상을 채워주는 동물사랑단의 활동(?)과 고민을 회원분들과도 나누고 싶어 글을 실어봅니다.

합정역 7번 출구부터 상담소까지 약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출근길. 길지 않은 시간 동안 강아지, 고양이, 비둘기, 까마귀, 쥐 등 다양한 동물들을 만납니다. 특히 이 시간엔 상담소 맞은편 성산중학교 화단 나무에 모여 앉아



— 상담소 길고양이 밥자리에 줄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비둘기들

쫄쫄거리는 참새들이 눈에 띄니다. 이 모습을 본 활동가들은 ‘참새가 아침 나눔 중이다’라는 귀여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아침나눔¹ 중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새는 생존을 위해 인간 거주지에서 서식합니다. 인간이 있는 곳엔 천적이 거의 없고, 먹이가 풍부하며 둥지 틀 곳

이 많기 때문입니다. 참새들의 전략인 셈이죠. 실제로 인간이 마을을 떠나면 참새도 떠난다고 합니다. 아마 아침에 만나는 참새들도 ‘합정동 인간들 속에서 어떻게 하루를 보낼까’하는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닌지 상상하기도 합니다. 아침부터 부지런한 참새들을 보며 출근길 힘을 내봅니다.

참새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한 어느 날, 신나는 점심시간 후 활동가들은 산책을 나섰습니다. 어디선가 낮은 새소리가 들립니다. 홀린 듯이 동물사랑단 활동가들이 소리를 따라간 곳엔……. 평소엔 쉽게 볼 수 없던 대표적인 환경지표종 제비가 있었습니다. 필로티 건물 1층 주차장에 제비가 죽어 아무지게 둥지를 튼 것이죠. 그 작은 입으로 진흙과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견고하게 집을 지었을 생각하니 뭔가 감동적입니다. 옆에는 두 개의 제비집이 더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 지었던 집 같습니다. 건물바닥과 주차된 차량에 제비 똥 흔적들이 많은 걸 보니 건물주인께서 매년 돌아오는 제비를 내쫓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철새 제비가 안전감을 느끼고 다시 돌아와 가족을 꾸린 모양입니다. 제비와의 공존을 택한 건물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
1) (편집자 주) 매일 아침 11시, 전날 일정 소회와 당일 일정을 공유하는 상담소의 문화

그런데 동물과의 공존은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한 활동가가 퇴근 길에 차에 치여 죽은 비둘기를 목격하여 구청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체가 길가에 있어 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자가 올 때까지 활동가가 현장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몇몇 행인들이 비둘기를 향한 혐오 발언을 하여 속상했다



— 산책 중 발견한 제비.
새끼에게 먹이를 나르고 있습니다.

고 합니다. 도심 속에서 서식밀도가 높아진 비둘기는 어쩔 수 없이 인간에게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동물은 혐오해도 되는 것일까요. 돌아해보면 야생동물의 문제는 환경파괴, 무분별한 개발 등 인간들의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활동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 경제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으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고민해 봅니다.

어려운 고민이지만 동물사랑단 활동가들은 각자의 일상에서 비건, 제로웨이스트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하며 동물권, 환경권 등과 같은 다른 영역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것들이 별개의 권리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며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그리고 일상에서 접하는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활동가들의 습관(?) 같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반성폭력 운동과 함께 동물사랑단 활동도 함께 이어나가겠습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담소와 열림터에 보내주신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신 신규회원님들, 환영합니다.

WOO JOHN JONG KWAN, 강단비, 강한솔, 강혜주, 고병진, 고예린, 고진선, 고현경, 구태원, 권재형, 김정민, 김기훈, 김나리, 김다인, 김미경, 김민주, 김보람, 김선환, 김성관, 김성희, 김세영, 김소연, 김연수, 김연수, 김예린, 김용빈, 김유성, 김유진, 김정우, 김주서, 김지유, 김창교, 김태경, 김현정, 김현진, 김홍준, 김화영, 김휘학, 나효민, 노희정, 문다빈, 문주희, 문해인, 박민정, 박민재, 박서인, 박소미, 박소미, 박수민, 박수민, 박유화, 박은지, 박재하, 박정수, 박정화, 박정훈, 박종원, 박지혜, 박진선, 박하린, 백희원, 복서희, 서영교, 손차민, 송해주, 신지현, 양동민, 여나윤, 오영일, 월드메디칼(고영국), 유길호, 유선영, 윤다솔, 윤성현, 윤수, 윤장혁, 이경은, 이다은, 이명란, 이민주, 이보미, 이비현, 이선희, 이성례, 이세용, 이승민, 이영주, 이용준, 이우상, 이윤주, 이윤희, 이은수, 이은정, 이자민, 이재원, 이정인, 이정인, 이주란, 이주영, 이준호, 이하영, 이혜정, 임수영, 장보람, 장세령, 장세훈, 장인혜, 정보라, 정서하, 정선영, 정아, 정영애, 정윤지, 정은경, 정지연, 조성현, 조영식, 조혜정, 지중근, 차성안, 최기영, 최성희, 최영미, 최영애, 최영지, 최정인, 최준, 최준원, 최지원, 최지원, 최진우, 최원정, 최혜란, 편찬빈, 하에서, 홍민지, 홍정우, 홍지수, 홍지안, 황지상 (이상 141명)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주)피알관측, (주)한샘, aaami, LEE JO HYANG, oopiuu, 강경인, 강남식, 강다영, 강동화, 강동희, 강동록, 강민서, 강민지, 강보길, 강상현, 강선화, 강소희, 강숙영, 강양희, 강영, 강영순, 강예진, 강유가람, 강윤정, 강은진, 강인화, 강재영, 강재희, 강재인, 강지원, 강지윤, 강찬, 강창일, 강태원, 강희진, 계경문, 고금이, 고병진, 고병현, 고보경, 고봉선, 고선영, 고선주, 고성관, 고예린, 고은별, 고인숙, 고재경, 고재영, 고정남, 고정민, 고정삼, 고지연, 고지현, 고태우, 고하영, 고희정, 고희선, 공경희, 공다연, 공수현, 공주, 광정화, 광민환, 광복매, 광상아, 광영화, 광옥미, 광윤이, 광하진, 광현지, 구민희, 구분효, 구향보, 구현지, 구혜린, 국민, 권구홍, 권김현영, 권다혜, 권미정, 권상범(리저문드), 권세린, 권세윤, 권소영, 권솔, 권수현, 권수혜, 권순호, 권영진, 권이진, 권인선, 권인숙, 권정, 권주영, 권주희, 권지연, 권혜경, 권효중, 금철영, 갈애슬, 갈은정, 갈지혜, 갈기영, 갈가인, 갈기현, 갈강민, 갈경선, 갈경아, 갈경찬, 갈경희, 갈계진, 갈고은, 갈광진, 갈광영, 갈규원, 갈기태, 갈기혜, 갈나연, 갈나연, 갈나영, 갈나은, 갈나은, 갈나희, 갈남현, 갈다미, 갈다영, 갈다은, 갈다은, 갈다은, 갈다인, 갈다형, 갈다혜, 갈다희, 갈다희, 갈대삼, 갈대연, 갈도린, 갈도연, 갈도연, 갈도윤, 갈도홍, 갈도희, 갈동령, 갈동은, 갈동한, 갈동현, 갈동희, 갈두나, 갈돌순, 갈로사, 갈리나, 갈명민, 갈명선, 갈모래, 갈문영, 갈문주, 갈미정, 갈미경, 갈미라, 갈미랑, 갈미선, 갈미순, 갈미옥, 갈미현, 갈민진, 갈민규, 갈민기, 갈민별, 갈민수, 갈민아, 갈민은, 갈민정, 갈민정, 갈민정, 갈민주, 갈민주, 갈민준, 갈민지, 갈민지, 갈민환, 갈민희, 갈백애라, 갈보람, 갈보명, 갈보연, 갈보화, 갈복연, 갈복희, 갈상미, 갈상완, 갈상원, 갈상정, 갈새름, 갈셋별, 갈선경, 갈선미, 갈선아, 갈선에, 갈선영, 갈선우, 갈선재, 갈선혜, 갈선화, 갈선희, 갈성동, 갈성모, 갈성문, 갈성미, 갈성수, 갈성욱, 갈성자, 갈성현, 갈성훈, 갈성희, 갈세명, 갈세원, 갈세윤, 갈세형, 갈소라, 갈소연, 갈소은, 갈소정, 갈송연, 갈송이, 갈수, 갈수라, 갈수민, 갈수민, 갈수민, 갈수민, 갈수아, 갈수연, 갈수연, 갈수잔, 갈수진, 갈수향, 갈수현, 갈수현, 갈수희, 갈수희, 갈순영, 갈슬아, 갈승연, 갈승재, 갈승현, 갈시우, 갈시원, 갈신아, 갈신희정, 갈아름, 갈아연, 갈안나, 갈안나, 갈양은, 갈양지, 갈양지영, 갈양희, 갈열림, 갈여진, 갈연정, 갈연정, 갈연수, 갈연우, 갈연우, 갈연우, 갈연재, 갈연희, 갈영나, 갈영동, 갈영선, 갈영숙, 갈영선, 갈영주, 갈영환, 갈영희, 갈예람, 갈예리, 갈예리, 갈예림, 갈예린, 갈예은, 갈요섭, 갈용선, 갈우연, 갈원국, 갈원식, 갈원우, 갈유나, 갈유리, 갈유림, 갈유빈, 갈유영, 갈유진, 갈유진, 갈유진, 갈윤경, 갈윤경, 갈윤경, 갈윤아, 갈윤희, 갈은경, 갈은경, 갈은경, 갈은별, 갈은선, 갈은솔, 갈은아, 갈은정, 갈은하, 갈은희, 갈이슬, 갈이슬, 갈민경, 갈민솔, 갈민숙, 갈인혜, 갈재원, 갈재원, 갈재호, 갈재희, 갈정민, 갈정수, 갈정완, 갈정은, 갈정혜, 갈정희, 갈정희원, 갈종용, 갈종희, 갈종희, 갈주아, 갈주연, 갈주영, 갈주은, 갈주희, 갈주희, 갈준, 갈준, 갈준빈, 갈준수, 갈준태, 갈준태, 갈지민, 갈지선, 갈지연, 갈지연, 갈지연, 갈지연, 갈지연, 갈지영, 갈지우, 갈지우, 갈지원, 갈지원, 갈지원, 갈지원, 갈지윤, 갈지윤, 갈지은, 갈지은, 갈지찬, 갈지현, 갈지현, 갈지형, 갈지혜, 갈지혜, 갈지호, 갈지훈(갈해리), 갈진리, 갈진별, 갈진아, 갈진용, 갈진희, 갈찬유, 갈채연, 갈채연, 갈채영, 갈춘화, 갈춘배, 갈지인, 갈탁환, 갈태경, 갈태연, 갈태영, 갈태원, 갈태희, 갈하나, 갈하나, 갈하나, 갈하림, 갈하연, 갈하영, 갈하윤, 갈학선, 갈한선혜, 갈한슬, 갈해경, 갈해담, 갈현란, 갈현주, 갈현지, 갈현지, 갈현직, 갈현진, 갈현진, 갈형근, 갈형수, 갈혜경, 갈혜경, 갈혜민, 갈혜선, 갈혜선, 갈혜연, 갈혜영, 갈혜원, 갈혜윤, 갈혜은, 갈혜은, 갈혜인, 갈혜정, 갈혜준, 갈혜지, 갈혜진, 갈혜진, 갈효연, 갈효연, 갈화숙, 갈화숙, 갈효진, 갈효진, 갈희경, 갈희경, 갈희정, 갈희정, 갈희라, 갈희란, 갈희성, 갈희원, 나미나, 나수정, 나수홍, 나윤경, 나윤지, 나인선, 나인영, 나하윤, 나혜선, 나희영,

남규민, 남민영, 남수민, 남순아, 남슬아, 남정현, 남지연, 남지은, 남태진, 남현미, 남현우, 남혜란, 남효정, 노미선, 노선이, 노영은, 노유성, 노윤주,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주희, 노지성, 노태운, 노희민, 노희섭, 디트리그롭스(주), 도경선, 도병욱, 도서출판 움직씨, 도정호, 독회의 공부방, 류근영, 류길훈, 류란, 류신희, 류지은, 류진희, 류하연, 류한솔, 류현진, 류호운, 류호정, 류호찬, 류희준, 마민지, 마준희, 목소희, 문경희, 문귀영, 문기성, 문미라, 문미정, 문박엘리, 문수연, 문윤경, 문재연, 문준희, 문지영, 문지원, 문진우, 문혜준, 문희진, 문효진, 문희영, 민난주, 민정원, 민혜영, 박기민, 박나연, 박다위, 박다혜, 박명선, 박문정, 박미란, 박미선, 박미숙, 박미정, 박민아, 박민자, 박민주, 박민지, 박민지, 박보영, 박보은, 박부진, 박상신, 박상훈, 박상희, 박서원, 박서진, 박서연, 박선영, 박선영, 박선희, 박선희, 박설희, 박성주, 박세민, 박세진, 박소라, 박소림, 박소연, 박소희, 박수경, 박수미, 박수연, 박수용,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환, 박슬기, 박승수, 박승호, 박아름, 박아름, 박아일(Park Aileen), 박영진, 박유림, 박윤미, 박윤성, 박윤주, 박은미, 박은선, 박은지, 박은진, 박은화, 박이수, 박인기, 박재문, 박재민, 박정란, 박정민, 박정순, 박정연,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정훈, 박중희, 박주영, 박주연, 박준기, 박준하, 박지수, 박지연, 박지연, 박지연, 박지영, 박지원, 박지원, 박지현, 박지형, 박지희, 박진신, 박진표, 박진화, 박찬희, 박장경, 박창민, 박조롱, 박한샘, 박한울,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혜남, 박혜민, 박혜상, 박혜하, 박효린, 박희은, 박희정, 박희주, 반상환, 반순미, 반주영, 방영화, 방은교, 방한나, 배경, 배도준, 배명진, 배재별, 배성신, 배수현, 배순희, 배우미, 배자하, 배중수, 배진석, 배진연, 배하늘, 배현진, 배화정, 백영진, 백경훈, 백미록, 백세희, 백수미, 백순이, 백수연, 백지선, 백지연, 백현, 변순임, 변승현, 변유경, 변주희, 변지은, 변필진, 복서희, 북공인중개사사무소, 부성필, 부성필, 서경원, 서명호, 서미란, 서미현, 서정민, 서성진, 서순진, 서연희, 서용환, 서원, 서윤솔, 서윤정, 서은우, 서재선, 서정민, 서정애, 서정표, 서정현, 서정호, 서지은, 서진, 서현아, 서혜미, 서혜원, 서혜진, 서효린, 서휘륜, 석아름, 석진주, 선우준, 선유우, 선재희, 설연자, 성기원, 성언이, 성예랑, 성현아, 성혜경, 세움교회, 소희성, 손경이, 손동근, 손명규, 손명진, 손미연, 손미정, 손민우, 손상열, 손소희, 손연성, 손우성, 손원영, 손유진, 손정민, 손준성, 손지민, 손지용, 손차민, 송다은, 송명희, 송상민, 송수진, 송우섭, 송용원, 송유정, 송유진, 송윤진, 송은숙, 송인경, 송지영, 송진아, 송차령, 송현민, 신경숙, 신경혜, 신기훈, 신누리, 신다희, 신동현, 신명숙, 신민정, 신범식, 신상호, 신선, 신수아, 신아름, 신영미, 신유성, 신우철,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정훈, 신종훈, 신지혜, 신진, 신필규, 신한슬, 신현규, 신현주, 신혜림, 신혜미, 신혜수, 신혜은, 신혜원, 심상희, 심선지, 심성보, 심승주, 심아영, 심은희, 심조원, 심혜련, 심혜림, 심효진, 썸스테이지, 안경훈, 안미향,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선민, 안소진, 안승연, 안원숙, 안유정, 안윤정, 안은혜, 안재훈, 안재희, 안정규, 안제성, 안지희, 안철민, 안준기, 안태희, 안현수, 안형윤, 안희정, 양경아, 양기진, 양민희, 양성욱, 양성은, 양수안나, 양영오, 양유경, 양윤정, 양은혜, 양은희, 양이숙, 양정민, 양지연, 양창아, 양혜석, 양현경(이산), 양현규, 양효준, 양진희, 엄은지, 엄태진, 엄현정, 엄희주, 여운경, 여은진, 여진아, 염미지, 염정신, 영실, 오경민, 오영희, 오병근, 오상민, 오선근, 오성화, 오성훈, 오세희, 오수연, 오수진, 오승미, 오승민, 오승기, 오승준, 오연정, 오영희, 오윤하, 오은비, 오의정, 오재석,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우성희, 우안녕, 우완, 우윤지, 우준희, 우효상, 원경주, 원민정, 원선아, 원성혜, 원순경, 원찬희, 위은지, 위정윤, 유경미, 유경희, 유다수, 유민수, 유병준, 유보람, 유선영, 유세정, 유수연, 유승규, 유승민, 유승재, 유승진, 유승현, 유연정, 유영서, 유예리, 유인규, 유경수, 유정훈, 유준상, 유지아, 유지에, 유지혜, 유지, 유희윤, 유현미, 유현순, 유현아, 유행하, 유혜진, 유호정, 윤경진, 윤나래, 윤다정, 윤선우, 윤성빈, 윤성준, 윤소미, 윤소정, 윤소정, 윤소진, 윤수련, 윤숙경, 윤승현, 윤아름,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영호, 윤인규, 윤자영, 윤정선, 윤정림, 윤정희, 윤지연, 윤지원, 윤현아, 윤형섭, 윤희정, 음선화, 이가영, 이강익, 이건정, 이경미, 이경숙, 이경숙, 이경진,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계화, 이규리, 이규호, 이규화, 이나연, 이나영, 이나일, 이남주, 이다은, 이도경, 이도영, 이동구, 이동규, 이동영, 이동원, 이동은, 이동원, 이명란, 이명숙, 이명신, 이명현, 이명희, 이문주, 이미경, 이미란, 이미령, 이미정, 이미화, 이민아, 이보미, 이보배, 이부덕, 이산하, 이상미, 이상민, 이상용, 이상원, 이상재, 이상진, 이새름, 이서연, 이서희, 이선영, 이선진, 이선택, 이선혜, 이선호, 이선희, 이설화, 이성은, 이성인, 이성주, 이세나, 이세린, 이소림, 이소연, 이소영, 이소은, 이소현, 이수안, 이수연, 이수열, 이수정, 이수정, 이수지,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수진, 이숙현, 이순화, 이슬기, 이승규, 이승숙, 이승용, 이승준, 이승진, 이아름, 이애리, 이어경, 이연정, 이연주, 이연주, 이연표,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용택, 이우원, 이원형, 이원훈, 이유미,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유진, 이윤경, 이윤선, 이윤정, 이윤희, 이은, 이은, 이은경, 이은미, 이은실, 이은애, 이은주, 이은지, 이은혜, 이은호, 이은화, 이의중, 이재원, 이재원, 이재철, 이재호, 이정균, 이정민, 이정순, 이정아, 이정열, 이정은, 이정은, 이정은, 이정현, 이경화, 이정훈, 이종연, 이종은, 이종희, 이주영, 이주희, 이준기(박은혜), 이준범, 이준형, 이준희, 이준희, 이지민, 이지영, 이지원, 이지유, 이지유, 이지은, 이지은, 이지은, 이지행, 이지현, 이지현, 이지혜, 이진우, 이진희, 이진희, 이참슬, 이창수, 이채영, 이춘애, 이태희, 이하연, 이하은,



이혜사랑, 이혜원, 이향심, 이현미, 이현수, 이현우, 이현정, 이현주, 이현주,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연, 이혜연, 이혜정, 이혜정, 이혜지, 이혜진, 이혜진, 이호선, 이호진, 이홍연, 이홍은, 이화진, 이효린, 이희동, 이희선, 이희수, 이희승, 이희진, 이희화, 이신애, 임근호, 임경진, 임규정, 임금희, 임기택, 임보라, 임서준, 임신민, 임설아, 임소영, 임소희, 임여경, 임예은, 임우주, 임유경, 임은규, 임은재, 임재택, 임정옥, 임주희, 임지숙, 임지영, 임지현, 임진용, 임하나, 임효진, 임홍심, 임희윤, 장광미, 장다혜, 장미정, 장선주, 장성연, 장성희, 장수경, 장수영, 장수영, 장수진, 장여경, 장연주, 장영아, 장예리, 장예리, 장예지, 장윤경, 장윤성, 장은미, 장은재, 장은지, 장정윤, 장주영, 장지승, 장진, 장채원, 장하나, 장혜윤, 장효정, 전누리, 전민주, 전병미, 전서래, 전소연, 전소영, 전송화, 전수인, 전수지,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민, 전영은, 전유경, 전유나, 전유미, 전은유, 전은재, 전재혁, 전정현, 전지현, 전현정, 전혜영, 전혜진, 전화정, 전효주, 정경수, 정경애, 정경자, 정관식, 정광, 정광철, 정교희, 정규민, 정기영, 정나리, 정다솔, 정대린, 정택기, 정동연, 정두리, 정래준, 정명화, 정문영, 정미사, 정민선, 정민아, 정보리, 정보배, 정복련, 정상순, 정선영, 정세미, 정소린, 정수연, 정수형, 정슬아, 정승규, 정여진, 정연주, 정영미, 정영서, 정영석, 정영애, 정애, 정예솔, 정유림, 정유빈, 정유선, 정윤경, 정은령, 정은아, 정인호, 정재영, 정재우, 정재욱, 정재하지은, 정정기, 정종인, 정준애, 정지수, 정지아, 정지은, 정지은, 정지인, 정지현, 정지혜, 정지훈, 정진주, 정진화, 정초윤, 정현, 정현교, 정현우, 정혜윤, 정혜훈, 정효정, 정희수, 제하나, 조경오, 조계산, 조규선, 조나단, 조동현, 조무호, 조민아, 조민우, 조서연, 조선주, 조성화, 조소연, 조소연, 조수연, 조연주, 조영선, 조영선, 조영주, 조원영, 조유빈, 조유진, 조은샘, 조은숙, 조은을, 조은정, 조은희, 조인정, 조인석, 조인욱, 조일래, 조인춘, 조재원, 조재휘, 조주영, 조준희, 조준희, 조지원, 조지혜, 조진희, 조한이, 조한철, 조해연, 조현선, 조현우, 조현주, 조혜인, 조혜정, 조혜재, 좌유빈, 존존, 주광용, 주말기공소, 주명희, 주소현, 주식회사통보, 주호준, 지성열, 지승경, 지오, 지인숙, 지주혜, 지현, 진새록, 진시우, 진현주, 차선주, 차성안, 차영선, 차지우, 차현주, 차현영, 채단비, 채우리, 채우리, 채은혜, 채은화, 채현숙, 채훈병, 천정아, 천정환, 최강백, 최건호, 최경식, 최근우, 최급래, 최기영, 최다운, 최동석, 최동인, 최란, 최미경, 최미림, 최미수, 최미현, 최민아, 최민아, 최민욱, 최민정, 최병훈, 최보름, 최보미, 최보영, 최보원, 최빛그림, 최서영, 최서윤, 최석우, 최성실, 최성호, 최세연, 최세진, 최소영, 최수민, 최수민, 최수진, 최숙희, 최아림, 최아정, 최연우, 최영애, 최영주, 최옥경, 최옥성, 최용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정,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식, 최은영, 최은정, 최익진, 최인기, 최인혁, 최재용, 최정은, 최정택, 최지나, 최지연, 최지원, 최지은, 최지은, 최진안, 최진욱, 최찬양, 최태순, 최한나, 최현경, 최현윤혁, 최현정, 최혜란, 최혜린, 최혜영, 최효선, 최희범, 최희진, 추민주, 추상아, 추선미, 추정희, 추지현, 탁수정, 표주성, 표하은, 표혜림, 하나은, 하나영, 하류, 하승수, 하연수,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주연, 하지수, 하지는, 하희정, 한기보, 한민천, 한문형, 한미화, 한민지, 한보경, 한보라, 한서영, 한소망, 한수경, 한승용, 한승진, 한승호, 한신복, 한이름, 한여선, 한영미, 한예림, 한예솔, 한원희, 한윤미, 한은희, 한이계영, 한일아, 한정민, 한지연, 한지연, 한재윤, 한해령, 한희정, 한경진, 한아름, 한진혁, 허건, 허광은, 허민숙, 허신형, 허성준, 허신애, 허은주, 하이화, 하이승, 허제, 허준석, 허지민, 허지은, 허진아, 허재영, 허태균, 현정순,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수진, 홍순기, 홍은정, 홍일선, 홍주은, 홍지수, 홍지은, 홍진경, 홍찬숙, 홍현진, 황미선, 황보승태, 황서연, 황성기, 황성인, 황송원, 황숙희, 황승호, 황에나, 황유미, 황정경, 황지원, 황진선, 황효진, 황휘 (이상 1563명)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감사합니다.

강대열, 강병득,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고재영, 김경현, 김명륜, 김미주, 김민정, 김소연, 김연경, 김유란, 김유열, 김지은, 김보선,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노다을, 목동 명성교회 청년부, 미씨유림, 박미란, 박성환, 박수진, 박아영, 박용순, 박인필, 박중훈, 박지희, 박진우, 배경, 배정철, 복인혜, 송미현, 신상호, 안백린, 안현진, 양채원, 오주현, 원미진, 위밋업스포츠, 유정화, 윤지원, 이덕화, 이문희, 이상화, 이우열, 이유미, 이윤희, 이혜사랑, 이현상, 임나영, 임미화, 임초롱, 임효진, 장경수, 장철우, 전현지, 정다희, 정대린, 정명중, 조인석, 조일래, 존타클립, 천수빈, 최수진, 최유진, 최진주, 추미애, 하동호, 한전부녀회(이상 72명)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림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NG FAITH SHI EN, 강문식, 강민혜, 강소영, 강은재, 강지혜, 고병진, 고지현, 고희정, 고희선, 곽신하, 권태형, 권혜준, 금보경, 김광현, 김남희, 김다미, 김다솔, 김다운, 김도형, 김도희, 김동균, 김문주, 김미우, 김미진, 김민규, 김민성, 김민욱, 김민준, 김복희, 김선아, 김선이, 김설아, 김소연, 김소현, 김수연, 김수연, 김수잔, 김수진, 김신아, 김아리, 김연순, 김예리, 김원오, 김유리, 김유숙, 김유엘, 김윤혜, 김이슬, 김정연, 김주연, 김지국, 김지민, 김지완, 김지원, 김지은, 김지혜, 김지혜, 김차연, 김태연, 김한결, 김해나, 김현지, 김현지, 김혜린, 김혜연, 김혜진, 김효진, 김희도,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노승연, 노영미, 노유민, 노주희, 동진한의원, 류근영, 류수민, 류종현, 류한솔,

목소희, 문숙영, 문준희, 문채훈, 미씨유림, 민슬기, 민조현, 박계나, 박미나, 박미정, 박미정, 박상희, 박세종, 박아름, 박용순, 박우영, 박인필, 박정옥, 박현희, 박혜민, 박혜상, 박혜은, 박효인, 박효정, 배용준, 배정린, 배진석, 백상준, 범무법인(유한) 지평, 서범림, 서영민, 서해인, 선운우, 심감교희, 성민주, 성세희, 손정은, 송재희, 송지영, 송지영, 송지현, 송희원, 신경혜, 신보영, 신영미, 신용범, 심연희, 심진섭, 심현실, 안소연, 안효선, 양기진, 양윤희, 양주애, 양지애, 양혜연, 엄지은, 엄정신, 오경은, 오민지, 오선호, 오연서, 오영일, 오정배, 오정희, 오희중, 원지혜, 위정윤, 유규민, 유선숙, 유소리, 유예리, 유용석, 유정안, 유진영, 유채원, 유희신, 유혜영, 윤여연, 윤영신, 윤채희, 윤하영, 윤희진, 이경선, 이경아, 이다윤, 이도경, 이도행, 이도희, 이명신, 이명희, 이미홍, 이산하, 이산하, 이상연, 이상아, 이수정, 이승혜, 이승희, 이어진, 이연지, 이연재, 이옥영, 이은미, 이은지, 이정숙, 이정화, 이정효, 이종국, 이주란, 이주섭, 이주영, 이주현, 이준용, 이지영, 이지예, 이지우, 이찬희, 이태복, 이혜인, 이향심, 이향화, 이혜림, 이혜진, 이효은, 이희진, 익명, 임나영, 임명순, 임미영, 임소현, 임수현, 임우영, 임윤정, 임은희, 임지연, 임지현, 장다혜, 장세희, 장예승, 장주영, 장채원, 장희진, 전수인, 전순연, 전순유, 전승기, 전해영, 전훈진, 정고은, 장다연, 정민석, 정선희, 정세미, 정순희, 정영수, 정은경, 정은지, 정은혜, 정재윤, 정정희, 정정희, 정지원, 정잔아, 정창수, 정하나, 정현주, 정효영, 조보라, 조서영, 조영래, 조윤기, 조은희, 조중신, 조현아, 주혜명, 주혜정, 진보영, 진수희, 최강현, 최민영, 최수민, 최수연, 최유리, 최유림, 최윤미, 최익진, 최인기, 최재용, 최정림, 최정민, 최정민, 최희진, 추연정, 추지영, 표아름, 하상연,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교회, 한승용, 한예림, 한민숙, 허복옥, 허정수, 허정연, 허재량, 허지선, 홍나연, 홍상희, 홍윤기, 홍혜승, 황동하, 황상필, 황예림, 황은순 (이상 295명)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사후원자분들, 감사합니다.

(주)문화동네, (주)사회평론아카데미, UK Online Giving Foundation, 강소라, 강은영, 케릴라리딩클럽:클래스린, 권다혜, 권수혜, 권혁주, 권혁주, 근력학교 주식회사, 김경년, 김남혜, 김동은, 김동현, 김민아, 김상경, 김수린, 김순기, 김연경, 김원옥, 김은아, 김일수, 김주아, 김주원, 김준이, 김중현, 김지윤, 김진희, 김현영, 김혜경, 김혜리, 김혜정, 노경미, 노다운, 노선아, 대머리마스터, 랍지커피, 류수민, 류지란, 문민경, 박선은, 박성경, 박소영, 박수민, 박지희, 박진우, 박현별, 방지현, 배유리, 서성연, 석연지, 설지안, 산수희, 신은혜, 신지수, 신현정, 신혜연, 신혜연, 양지혜, 여정미(하늘의인연), 오윤이, 와우산30, 유슬기, 유희정, 윤경진, 윤나영, 윤정린, 이도경, 이보미, 이서정, 이서정, 이소연, 이승민, 이시현, 이연주, 이영희, 이원준, 이유희, 이윤, 이은아, 이현성, 이현성, 이형찬, 이혜림, 이효정, 임수정, 장광미, 장예지, 전송화, 전주현, 전지은, 정윤희, 정재희, 정지원, 정혜인, 조미경, 조윤지, 조은별, 조은희, 조일래, 채은화, 천가영, 최란, 최아영, 최지나, 최지원, 추상아, 하현수, 한소망, 한소예, 허들을 넘는 여자들, 허지영, 현지원, 홍진옥 (이상 115명)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올림, 부설 쉼터 열림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 회원을 일괄등록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서는 상담소 또는 열림터로 연락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은행 영업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익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상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상담소 후원회원 회원정보 변경하기>를 참고하시면, 온라인으로 손쉽게 회원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회원 문의: 닳밭, 산 / 02-338-2890-1 / f.member@sisters.or.kr
 부설 쉼터 열림터 회원 문의: 수수 / 02-338-3562 / yeolim@sisters.or.kr

훈훈한 기부

- { 상담소 }** 이경환 님의 꽃감 1상자
 신용우 님의 든든한 연대의 과일바구니
 조인섭 님의 감미로운 와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 상콤한 비타오백 1박스
 선민 님의 눈으로 한번, 입으로 두 번 먹는 예쁜 수제 약과세트
 최지나 님의 속 든든한 진라면 2박스
 감나무집 어르신님의 큼직하고 아삭한 배 한박스
 독립서점 B급취향의 직접 구운 각종 쿠키박스
 이명숙 님의 점심을 책임져줄 쿠키 20인분 전기밥솥
 인턴 모자와 연의 아쉬움 눌러담은 달콤한 비건초코케이크
 얇은 발렌타인데이 맛이 수제 초콜릿 세트
 내담자 님의 맛있고 따뜻한 빵
 모두의 부엌 님의 세계여성의날 맛이 비건초코케이크
 최보원 님의 상콤함 충전! 천혜향 1박스
 푸른나비 님의 사려깊은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미에로화이바 1박스씩
 서울대 공익법률센터의 촉촉한 마들렌, 에그타르트
 100주년기념교회의 부활절 기념 호박설기떡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연대의 논산딸기 2박스
 성폭력예방치료센터의 자신있게 추천하는 동네 맛집 빵 여러종
 SJ 님의 요즘 트렌드 상주 꽃감 약과
 이윤희 님의 도경 취업기념 티떡
 마이라의 미국에서 파는 멕시코 과자 2종
 또우리 은서의 따뜻한 호두과자와 상콤한 딸기오물렛
 또우리 유유의 왕 크고 왕 맛있는 쿠키 1박스
 나눔터 투고자 WR 님의 소중한 가져온 캐나다 쿠키, 초콜릿, 커피와 꿀
 또우리 정이의 주스 1박스
- { 열림터 }** 위밋업스포츠의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스포츠의류, 생리컵, 도서 총 55개
 심심잡화점 책방 최호선 님의 다채로운 재미가 있는 11권의 책



<여전히 무한한 행복들이 있지>는
2023년 열림터 치료회복 글쓰기 프로그램에서 만든 문집입니다.

글쓰기 프로그램에 함께 했던 열림터 활동가, 강사의 글 두 편과
열림터에서 생활하는 세 명의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열림터에서 찾은 작고 큰 행복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2023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의밤, ‘페미본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에 대한 백래시가 너무 너무 참기 어렵다고요?
 ‘너 페미니?’ 공공연하게 위축되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이미 한번 되어버린 ‘페미’는 돌이킬 수가 없지 않아요!

백래시가 심해질수록 페미력이 더 강해지도록,
 든든한 연대자이자 동료로, 후원을 통한 참여로
 페미니스트의 존재를 서로 확인하는

202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후원의 밤 <페미본색>으로 오세요!



◀ 페미니스트 본색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다면?